

2020 **꿈** 을 쫓다 <4> 지휘자 박승유



빈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한 박승유 지휘자는 귀국 후 K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휘의 매력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연주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가 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휘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지휘를 통해 관객들에게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고 굉장한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2003년 15세의 나이로 오스트리아 유학길에 올라 잘츠부르크 모짜르트음대 국립음대에서 첼로를 전공, 첼리스트로 활동했던 박승유(34)씨가 지휘자로 변신해 돌아왔다.

박 씨는 2011년 빈 국립음대 지휘과에 입학해 지휘공부를 시작했고 학사, 석사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후 시메온 피론코프 교수에게 최고연주자과정을 수학했다. 이후 2016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상주하는 뮤직페어라인스 황금홀에서 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공식 데뷔했다.

“첫 데뷔무대가 아직도 생생히 생각나요. 사실 공식 데뷔 전에도 지휘자로 크고작은 무대에 섰지만 황금홀에서의 지휘는 특별합니다. 200년 역사를 지닌 황금홀에서 수많은 지휘자들이 섰던 자리에 똑같이 선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오묘했어요. 2000석이 넘는 좌석이 꽂혔었고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지휘자가 될 생각은 없었다는 박 씨는 유학 당시 첼로 연주자로 시작해 음악가, 예술가를 넘어 좋은 사람이 되자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후 10대~20대를 연주자로 살았으니 음악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지휘에 발을 들이게 됐다.

“처음 지휘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지휘를 정식으로 하기 전 뮤지컬 두 편을 직접 기획하고 연출해 무대에 올려 지휘한 것을 보시더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첼로로 석사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생일날 아빠께서는 지휘봉을 선물 해주셨어요. 아마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허락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박 씨는 또 “첼리스트 때보다 지휘자로 무대에 섰을 때 더 온전히 연주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며 “관객석을 바라보고 연주할 때보다는 부담이 적지

15세 때 오스트리아 유학 첼로 전공

2011년 빈 국립음대 본격 지휘 공부

빈필 전용 뮤직페어라인스 지휘자 데뷔
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협연 예정
대학서 강의...인문서 발간도 준비

만 확실히 첼리스트 때와는 역할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지휘는 단독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혼자서는 연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주자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며 무대 위에서 함께 호흡하며 소리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게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지휘자들이 경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의 경우 젊은 지휘자를 양성시키는 차원에서 부지휘자 등 다른 명칭의 지휘자를 많이 고용한다. 박 씨는 “한국 같은 경우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아야 무대에 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나 말고도 다른 젊은 지휘자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첼로 리사이틀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기는 하루, 이를 잠깐이라도 손을 놓게 되면 기량 자체가 무너지고, 어린시절 첼로를 연주하던 박승유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주변에서 지휘자로 자리잡으려면 첼로는 당분간 멀리하는게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외국에서는 지휘와 연주를 동시에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은 좀 달라고. 지휘자를 연주자보다 높은 직급으로 보는 거죠. 아무래도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통솔하는데 있어서 책임은 더 따르겠지만 연주자와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박 씨는 평생의 선생님이 베토벤이라며 자신의 방에는 빈 베토벤 기념관에서 사온 흉상이 있다고

말했다. 아침마다 그 흉상과 인사한다는 그는 베토벤이라는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인류애와 에너지를 음악을 통해 느낄 때마다 전율이 흐른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의 음악을 무대에 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올해 박 씨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할 예정이다.

“올해 학교(성신여자대학교) 강의 과목이 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사실 교육에는 전혀 뜻이 없었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귀국 후 제일 먼저 맡은 일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렵게 적 독이어서 공부했던 음악을 지금 다시 한국어로 접하니 저에게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음악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데 관심이 많은 박 씨는 음악분야 인문서 발간도 준비중이다. 전문적인 이론서를 비롯한 좋은 책들이 많지만 비전공자나 클래식을 쉽게 접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한 책을 쓰고 싶다. 모차르트 등 친숙한 작곡가들의 삶을 에피소드로 풀어내며 일러스트도 함께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음악가로서 숙제가 많아요. 비전공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클래식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해외공연도 있어 당분간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활동할 계획입니다.”

박 씨는 음악가족이다. 그의 어머니는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표 김유정씨이며 동생은 빈 국립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이다. 박 씨는 2013 그라츠 국제 지휘 콩쿨 2위, 2015 런던 국제 지휘 콩쿨 우승, 2018 부카레스트 국제 지휘 콩쿨 2위·청중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에는 한국지휘자협회 최우수 지휘자로 선정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2020년 경자년 ‘복된 살이 길한 그림’

광주롯데갤러리 민화작가초대전, 17일~2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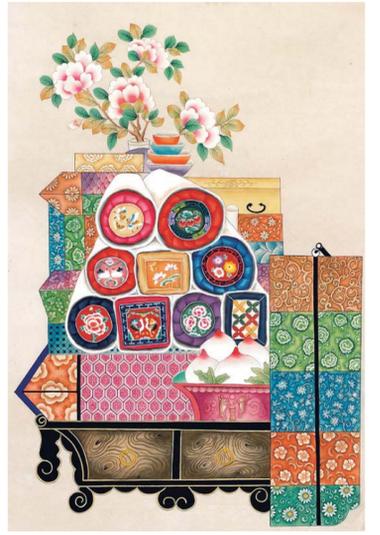
소박한 그림 민화(民畵)는 민중의 삶이 진솔하게 배어 있는 장르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수복강녕, 부귀영화, 입신양명을 염원하는 마음이 스며 있는 작품에는 해학 역시 담겨 있다.

광주 롯데갤러가 한 해의 시작이자, 음력 정월 초하루가 자리한 1월, 우리 생활문화의 미감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민화전을 개최한다. 오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열리는 ‘복된 살이 길한 그림’ 전에는 광주전통민화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9인의 민화 작가들을 초대했다. 참여작가는 고재희·김명자·김명희·김수현·방은주·서은선·전미란·성현숙·이광자씨 등이다.

조선후기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성립된 민화에는 보수화된 사대부 문화에 반하는 민중문화의 힘이 담겨 있다. 현세적인 기복의 개념과 함께 일상 주변을 아름답게 단장하고자 하는 열망도 들어 있다. 더불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특유의 낙천성과 해학은 우리 전통미술의 독창적인 형식으로 압혀진다.

민화는 사대부나 궁중에서만 즐기던 그림에서 백성들이 쉽게 접하는 그림으로의 변화를 가장 잘 대변하는 형식이며, 현대미술에 이르러서도 그 독자적 미감과 자유분방함은 상징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화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각종 문방구와 골동품, 화첩, 기물 등을 그린 책가도를 비롯해 화려한 꽃과 나비가 등장하는 화조도, 장수



김수현 작 '꿈꾸는 방'

를 기원하는 십장생도와 함께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도, 잡귀와 액운을 막아준다는 맹호도, 까치와 호랑이 등 친숙한 민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과거의 재현을 넘어서 참여작가들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민화작품들도 전시된다. 오픈식 17일 오후 4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양문화 출발점 ‘로마, 영원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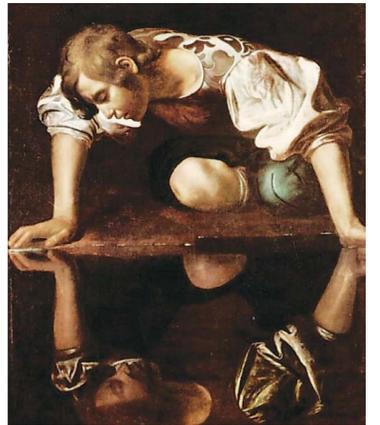
‘인문지행’ 무료강연 19일 영화의 집

(사)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이 진행하는문화예술기획 ‘인문예술도시기행’ 1월 행사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로마, 영원한 도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에서는 서양 문화와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인문 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바르베르니 미술관으로도 불리는 국립고전회화관에 전시된 명화들을 감상한다. 30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로마는 유럽문명과 역사의 정신적·물질적 중심지로서 영원한 흔적을 남겼고, 예술 및 지식사에 있어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는 도시다.

강의에서는 고대 로마의 정치, 상업 등 생활의 중심지였던 공간으로 카이사르 신전, 고대 원로원 등이 자리한 포로 로마노와 콜로세움을 차례로 살펴보고 로마의 건설과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 이어 바로크 양식으로 유명한 국립 고전 회화관에 전시된 필리포 리피의 ‘수태고지’, 르네상스 대표화가 라파엘로 산치오의 ‘라 포르나리나’, 바로크 미술의 천재화가 카라바조의 ‘유디트’, ‘나르시스’ 등을 만난다.

인문지행의 문화예술기획은 세계의 인문예술도



카라바조 작 '나르시스'

시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명화 감상을 통해 도시에 담긴 문화예술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인문 정신의 확장을 추구하는 시민강좌다. 기획과 진행은 심옥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엑스퍼트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